

여러분에게는 어떤 가을인가요?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새 절정을 지나, 정신 차려보니 벌써 계절은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일본에서는 ‘예술의 가을’, ‘독서의 가을’, ‘스포츠의 가을’, ‘행락의 가을’, ‘열매의 가을’ 등의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예술의 가을’과 ‘독서의 가을’은 쾌적한 가을이 되면 집중력도 높아져,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차분히 독서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는 것이겠죠. 또한 일본에서는 가을 단풍이 아름다워, 그 아름다운 색조도 예술 활동에 대한 의욕을 높여주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겨울에 가까워짐으로써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긴 밤 중에는 벌레 소리를 들으며 혼자 조용히 독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포츠의 가을’도 더운 계절보다는 선선해진 가을이 스포츠를 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계절에는 학교의 운동회나 스포츠 관련 행사가 많이 개최되기도 합니다.

‘행락의 가을’의 행락(行樂)은 산이나 들에 나가 놀고 즐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을은 날씨가 좋은 데다가, 단풍도 아름답고 과일 수확철이기도 하여, 각지에서 관련 이벤트도 많이 개최됩니다. 따라서 나들이하기에는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기뻐하는 ‘열매의 가을’. ‘식욕의 가을’이라고도 불리는 이 계절은, 과일과 채소, 제철 어패류와 버섯류 등 가게 앞에는 맛있어 보이는 제철 식재료가 진열되어 저희의 식욕을 자연스럽게 자극합니다. 가을에 식욕이 생기는 것은 역시 쾌적한 날씨 탓이기도 하지만, 먹거리가 줄어드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체내에 영양을 저장해 두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신체 작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재료가 풍부한 미야자키에서도 이 시기에 이세에비(닭새우)가 나오고, 전갱이와 정어리도 제철을 맞이합니다. 전국 상위의 생산량을 자랑하는 토란도 가을이 절정이고, 달고 맛있는 굴도 이제부터 점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 올해는 어떤 가을이 될까요?

이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 사항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32-8457 FAX : 0985-32-8512 Email : miyainfo@mif.or.jp

일상생활에 관하여 질문 및 고민이 있으시다면 미야자키현 외국인 서포트센터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TEL : 0985-41-5901 FAX : 0985-41-5902 Email : support@mif.or.jp

